

정자각상량문 丁字閣上樑文

金昌俊

<文化財管理局 建築技佐>

目次

- | | |
|--------------|-------------|
| 1. 上樑文과 奉安儀式 | 3. 獻陵丁字閣上樑文 |
| 2. 明陵丁字閣上樑文 | 4. 貞陵丁字閣上樑文 |

1. 상량문(上樑文)과 봉안의식(奉安儀式)

상량문(上樑文)이란 원래 집을 짓고 상량(上樑)할 때 송축(頌祝)하는 글이나, 오늘날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집을 짓게된 공사의 내용 등을 기술(記述)하여 한식건물일 경우 중도리받침 장혀속에 넣는다.

조선시대 학자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 보면 상량문(上樑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記述)하고 있다. 「상량문(上樑文)이란 공관(工官)의 우두머리가 상량(上樑)할 때 송축(頌祝)하는 치사(致辭)이다. 세속(世俗)에서 궁실(宮室)을 영건(營建)할 적에는 반드시 길일(吉日)을 가려 상량(上樑)하는데 친척과 빈(賓)이 밀가루를 반죽하여 음식을 만드니 오늘날 만두(饅頭)라고 부른다. 다른 음식물과 함께 경사(慶事)를 칭송(稱頌)하고 이어서 장인(匠人)을 호궤(犒饋)¹⁾한다. 그리고 장인(匠人)의 우두머리가 만두(饅頭) 등으로 사방(四方)과 상·하 여섯방위의 들보에 던지면서 이 상량문(上樑文)을 송독(誦讀)하여 송축(頌祝)한다. 이 상량문(上樑文)은 첫머리부터 끝까지 모두 병려문(駢麗文)²⁾을 사용하고 중간에 6수(首)의 시(詩)를 늘어놓으며 그 시(詩)는 각각 3구(句)씩 지어 사방(四方)과 상·하 여섯방위에 안배하니 대개 속례(俗禮)이다.」

0) 犒饋 : 음식을 주어 위로함.

2) 駢麗文 : 修辭하는데 對句를 많이 쓰는 문체. 즉 네 글자와 여섯 글자의 對句로 구성됨.

그리고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제이권(二卷)에는 상량문봉안제의(上樑文奉安祭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敘述)하고 있다. 「상량(上樑)하기 하루전에 병풍가리개 장막을 들보아래의 정간(正間)에 설치하고(문루(門樓)인 경우에는 아래층에 설치한다) 그 향(向)에 따라 자리를 깔고 탁자를 차리며 존소(尊所)¹⁾를 기둥 바깥 동쪽 가까이에 설치하고(왼쪽을 동(東)으로 삼는다. 무릇 아무 방위라고 한 것은 이에 따른다), 상량문(上

上樑文)을 읽을 탁자를 정탁(正卓)의 왼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헌관(獻官)²⁾과 제집사(諸執事)³⁾의 위치는 섬돌 아래에 설치한다(문루(門樓)인 경우에는 지세에 따른다). 두 줄로 북향하여 서쪽으로 올라간다. 당일 당상관(堂上官)이하 수참관(隨參官)⁴⁾이 시복(時服)⁵⁾을 갖추어 입고 모든 집사자(執事者)는 흑단령(黑團領)을 갖추어 입고 먼저 문밖의 막차(幕次)⁶⁾에 나아가 기다린다. 헌관(獻官)은 흑단령(黑團領)을 갖추어 입고 우화관(于華觀)에서 기다린다. 상량문(上樑文)이 도착하면 상량문(上樑文)을 가지고 온 사람이 헌관(獻官)에게 건네주며 헌관(獻官)은 꿇어앉아 받아서 집사자(執事者)에게 준다. 교생(校生)을 집사자(執事者)로 삼고 예조(禮曹)의 서리(胥吏)가 도와서 거행한다. 집사자(執事者)는 이것을 받들고 말을 타고 앞에 가고 헌관(獻官)은 뒤따라 문밖으로 나아가간다. 집사자(執事者)가 상량문(上樑文)을 도로 헌관(獻官)에게 주면 헌관(獻官)이 이것을 받들어 들고 기둥안으로 들어가서 상량문(上樑文)을 읽을 탁자위에 놓고 도로 문밖의 자리에 나와선다. 모든 집사자(執事者)가 손을 씻고 올라가 음식(飡)을 의식(儀式)대로 진설(陳設)한다. 정한 시간이 되면 모든 집사자(執事者)가 먼저 배위(拜位)에 나아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편다(교생(校生)이 동서(東西)로 갈라서서 창(唱)한다). 그리고 각자 자기 자리에 나아가간다. 알자(謁者)⁷⁾가 수참관(隨參官)과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손을 씻고 나서 이어 존소(尊所)에 나아가 동향(東向)하여 선다. 술을 따르고 나서 알자(謁者)가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위패(位牌)앞에 나아가 세 번 향(香)을 올리고 꿇어앉아 술잔을 잡고 술을 따라 올린 다음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꿇어앉는다. 상량문(上樑文)을 읽을 축관(祝官)이 상량문(上樑文)을 탁자위에 펴고 상량문(上樑文)을 읽는다. 다음에 헌관(獻官)이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펴고 내려가서 본래의 자리에 서며, 수참관(隨參官)도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편다. 상량문(上樑文)을 읽은 축관(祝官)이 그 상량문(上樑文)을 봉안관(奉安官)에게 준다. 봉안관(奉安官)이 이것을 받들어 들고 대들보 위로 올라가(충충사 다리를 사용한다) 대들보에 넣는다(흠이 있고 뚜껑으로 덮는다). 내려와서 다시 본래의 자리에 서면 헌관(獻官)이하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편다. 알자(謁者)가 헌관(獻官)이하를 인도하여 나간다.」

- 1) 尊所 : 술잔을 드리는 곳.
- 2) 獻官 : 식의 主祭官
- 3) 執事者 : 각 祭官들을 도와 式을 進행하는 祭官.
- 4) 隨參官 : 祭主나 모임의 우두머리에 수행하여 參례하는 官員.
- 5) 時服 : 入侍할 때나 공무를 볼 때 입는 옷.
- 6) 幕次 : 장막을 친 곳
- 7) 謁者 : 獻官을 인도하는 祭官.

창경궁(昌慶宮) 문정전상량식(文政殿上樑式)의 경우에는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와 종묘제례(宗廟祭禮)의 의식(儀式)을 참고로하여 홀기(笏記)를 작성하였다.

상량문봉안제의홀기(上樑文奉安祭儀笏記)

◇은 불창(不唱) ○은 창(唱)

◇집례(執禮)는 국궁사배(鞠躬四拜)하고 정위(正位)에 나아가시오.

- ◇알자(謁者)는 홀기(笏記)를 받들어 집례(執禮)에게 전(傳)하시오.
- 독문관(讀文官)¹⁾은 봉안관(奉安官)²⁾ 및 제집사(諸執事)는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립(北向立)하시오.
- 국궁사배(鞠躬四拜)하고 일어나시오.
-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세수(洗手)를 하시오.
- 각자(各自) 정위(正位)에 가서 서시오.
- 알자(謁者)는 헌관(獻官)을 인도(引導)하여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립(北向立)하게 하시오.
- 헌관(獻官)은 국궁사배(鞠躬四拜)하고 일어서시오.
- 참사자(參祀者)는 모두 일어서시오.
- 입례(立禮)로 사배(四拜)하시오.
- 알자(謁者)는 헌관(獻官)을 관세위(盥洗位)로 인도(引導)하시오.
- 헌관(獻官)은 세수(洗手)를 하시오.
- 알자(謁者)는 헌관(獻官)을 정계(正階)로 오르게 하시오.
- 알자(謁者)는 헌관(獻官)을 존소(尊所)로 인도(引導)하여 동향(東向)으로 서게 하시오.
- 헌관(獻官)은 감작(監爵)을 하시오.
- 사존관(司尊官)³⁾은 작(爵)에 술을 채우시오.
- 알자(謁者)는 헌관(獻官)을 신위전(神位前)으로 인도(引導)하시오.
- 헌관(獻官)은 꿇어 앉으시오.
- 좌봉관(左奉官)⁴⁾은 향로(香爐)를 받들고 우봉관(右奉官)은 향합(香盒)을 받드시오.
- 헌관(獻官)은 향(香)을 세 번 사르시오.
- 좌봉관(左奉官)은 향로(香爐)를, 우봉관(右奉官)은 향합(香盒)의 뚜껑을 받고 제상(祭床) 위에 올려 놓으시오.
- 외봉관(外奉官)은 작(爵)을 받들어 우봉관(右奉官)에게 전(傳)하시오.
- 우봉관(右奉官)은 꿇어앉아 작(爵)을 받들어 헌관(獻官)에게 전(傳)하시오.
- 헌관(獻官)은 작(爵)을 높혔다가 내려가 좌봉관(左奉官)에게 전(傳)하시오.
- 좌봉관(左奉官)은 꿇어앉아 작(爵)을 받아서 신위전(神位前)에 놓으시오.
- 헌관(獻官)은 부복(俯伏)하고 일어서 물러나 꿇어 앉으시오.
- 모든 제관(祭官)은 꿇어 앉으시오.
- 독문관(讀文官)은 상량문(上樑文)을 읽으시오.
- 헌관(獻官)은 부복(俯伏)하고 일어서시오.
- 모든 제관(祭官)은 일어서시오.
- 알자(謁者)는 헌관(獻官)을 인도(引導)하여 배위(拜位)에 내려서게 하시오.
- 독문관(讀文官)은 상량문(上樑文)을 봉안관(奉安官)에게 전(傳)하시오.
- 봉안관(奉安官)은 상량문(上樑文)을 양상(樑上)에 봉안(奉安)하시오.
- 독문관(讀文官)은 정위(定位)에 서시오.
- 헌관(獻官)은 국궁사배(鞠躬四拜)하고 일어서시오.
- 참사자(參祀者)는 일어서서 입례(立禮)로 사배(四拜)하시오.
- 독문관(讀文官), 봉안관(奉安官) 및 제집사(諸執事)는 배위(拜位)에 내려서시오.
- 국궁사배(鞠躬四拜)하고 일어서시오.
- 알자(謁者)는 헌관(獻官)에게 예필(禮畢)을 고(告)하시오.

◇집례(集禮)⁵⁾는 배위(拜位)로 내려서 사배(四拜)하시오.

이와같은 상량문봉안(上樑文奉安)절차는 옛 문헌에 가능한 충실하면서 현대적 어구(語句)로 표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헌관(獻官)과 독문관(讀文官), 봉안관(奉安官), 집례(執禮)는 시복(時服)을 입고 나머지 제관(祭官)들은 흑단령(黑團領)을 입는다.

1) 讀文官: 上樑文을 奉讀하는 祭官

2) 奉安官 : 上樑文을 종도리속에 奉安하는 祭官

3) 司尊官 : 잔에 술을 따르는 祭官.

4) 奉官: 잔에 술을 채울 때 잔을 받들어 주고, 奉香官에게 잔을 전하는 祭官.

5) 集禮 : 儀式을 進행하는 祭官.

2. 명릉정자각상량문(明陵丁字閣上樑文)

명릉(明陵)은 조선 제19대 숙종(肅宗)(1674~1720 재위)과 그의 계비(繼妃) 인현왕후민씨(仁顯王后閔氏) 그리고 제2계비(繼妃) 인원왕후김씨(仁元王后金氏)의 능(陵)으로 현재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 서오릉(西五陵)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1988년 5월 20일 정자각(丁字閣)해체보수공사중 발견된 상량문(上樑文)은 정자각(丁字閣) 어문(御問)의 종도리받침 장혀 속에 봉안(奉安)되어 있었는데 일반적인 상량문 봉안(奉安)과는 다소 다르게 장혀 옆면을 따내고 그속에 두루말이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다. 16.5m×36cm크기의 명주천에 쓰여졌다. 발견 당시 명주천은 일부 누런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으나 그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전문을 해독(解讀)할 수 있었다. 발견된 상량문(上樑文)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보존처리하여 문화재 2과에 보관토록하여 원본내용을 필사(筆寫)(한빛서당 이희찬)하여 원래의 발견된 장소인 종도리 장혀속에 넣었다.

본 정자각(丁字閣)의 상량문(上樑文)과 보수공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량문(上樑文)은 숙종대왕(肅宗大王)의 업적과 인품을 찬양하고 능침(陵寢)과 정자각(丁字閣)을 짓는 내용을 읊은 것으로 정헌대부행룡양위대호군규장각검교제학신석희(正憲大夫行龍驤衛大護軍奎章閣檢校提學申錫禧)가 짓고 자헌대부행룡양위대호군 조성교(資憲大夫行龍驤衛大護軍 趙性教)가 썼다. 상량문(上樑文) 작성연대는 청(淸)의 연호인 동치(同治)9년 4월 20일로 표기되어 있어 서기 1870년대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래 번역문은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 이정섭선생이 번역하였다.

명릉정자각중건상량문(明陵丁字閣重建上樑文)

삼가 생각하건대 영도(靈圖)는 후손을 넉넉하게 하도록 도와주니 원릉(園陵)은 신(神)이 있고 임금의 정성은 선조(先祖)를 추모하는데에서 나타나니 능침(陵寢)은 더욱 웅장하다. 환연(煥然)히 다시 보는 것 같으니 환하게 일신되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숙종대왕(肅宗大王)은 큰 업적과 우뚝한 공훈(功勳)으로 열성조(列聖朝)의 극히 광명(光明)한 덕(德)을 크게 이어 처음 즉위할 때에는 어린 나이였는데 오래도록 도를 닦음에 교화(教化)가 이루어져서 주왕(周王)처럼 장수하셨네.¹⁾

한마디 찬한 말을 듣거나 한가지 착한 행실을 보면 밝고 착한 사람을 기용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에 근본(根本)하고 서민에 징험(徵驗)하여 어린이를 가까이 하고 백성을 이롭게

게 하기를 즐거워하셨다. 효도와 우애를 정치에 베풀었고 호령(號令)은 착하지 아니한 것이 없으셨다.

정종(定宗)의 큰 명호(名號)²⁾를 의정(議定)하니 신과 사람이 시원하게 여겼고 장릉(莊陵)의 큰 전례(典禮)³⁾를 거행하니 조종(祖宗)에 빛남이 있었다.

태실(太室)에 추가(追加)의 칭호를 드날리니⁴⁾ 춘추의 의리가 밝아지고 황단(皇壇)에 숭보(崇報)의 예를 올리니 풍천(風泉)의 생각이 장원(長遠)⁵⁾하도다. 중궁(中宮)이 밝게 배필이 되니 사람들이 모두 보고 우러르며 서루(西樓)⁶⁾가 업적을 이으니 덕이 더욱 높고 도 높도다.

아름답고 훌륭하여라. 의(義)는 익숙하고 인(仁)은 정정(精徵)하며, 때는 맑고 도(道)는 통태(通泰)하였네. 좋아하고 미워하는 바를 엄히하여 교훈을 전해주시니 성모(聖謀)⁷⁾가 훌륭하고 아름다우며 충정(忠貞)을 표상하여 제향(祭享)하니 성대한 의식은 질서정연하도다.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를 따름에 국가의 안녕을 밝게 징험(徵驗)하고 인수(仁壽)의 경역에 오름에 즐거움을 엄숙히 지니셨네.

밤늦게 잠자고 식사를 늦추어가며 근심하시고 부지런함은 그 하늘을 대신하여 온갖 국정을 보살핌이었고 세찬 바람과 우렁찬 우뢰처럼 고무(鼓舞)하니 그 향국(享國)이 46년이나 되었네.

슬프다. 쓰시던 칼과 신바른 교산(橋山)⁸⁾에 비장(秘藏)하니 의관(衣冠)을 가지고 원묘(原廟)에 나와 노닐었네.⁹⁾ 백신(百神)이 금숙(金粟)¹⁰⁾일을 호위하니 보우(保佑)함이 한이 없고 2비(妃)가 창오(蒼梧)에서 따르니¹¹⁾ 좌우에 계시는 것처럼 신(神)이 오르내리네. 성묘(省墓)의 예를 빠뜨리지 아니하니 시절따라 수선(修繕)이 없지 아니하였고 건물이 흔들리기 쉬우니 세월이 오래됨에야 어찌하라.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 이어 건물을 짓는 큰 의논을 강구하였네. 도지(度支)에서는 공사를 도와하되 국상의 재결을 품신하였고 공장(工匠)이는 기술을 다하되 전(前)의 규모보다 더욱 넓혔도다. 운병(雲駟)을 붙잡을 수 없으니¹²⁾ 상설(象設)을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라. 들보를 들어 올리니 날을 듯한 건물 부여잡고 서로 기뻐한다. 산호(珊瑚)의 발과 보불(鬪鬪)의 장막은 주구(珠丘)¹³⁾의 잣나무와 어울려 정숙, 삼엄하고 조각한 궤(几), 분칠한 단장은 옥난간(玉欄干)의 꽃에 어리비친다. 삼가 속요(俗謠)를 지어 공교한 공장을 권한다.

이영차 들보를 동으로 들어 올리니 머리들려 영봉(嬰峯)바라보니 상서로운 빛 어리있네. 당년(當年)의 공과 교화가 성대함을 알겠거니 구름자취 전혀 없고 맑게 갠 청공이네.

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들어 올리니 익릉(翼陵)¹⁴⁾의 봄풀은 무성하게 푸르르네.

옛날의 도서, 사적, 꽃다운 은택 남아있고 옥안(玉雁)은 날아들고 석마(石馬)가 우는도다. 이영차 들보를 남으로 들어 올리니 은혜물결 넘치어서 바다함께 잠기었네.¹⁵⁾

산과 하수(何水)는 안고 밖이 삼천리 강토인데 백성들에게 오늘날까지 지극한 은택 뻗어치었네.

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들어 올리니 품계받은 푸른 솔은 영조대왕(英祖大王) 수식(手植)이네. 성인(聖人)이 성(誠)¹⁶⁾의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알겠거니 천지처럼 장구히 신극(宸極)¹⁷⁾을 모시도다.

이영차 들보를 위로 들어 올리니 북진(北辰)의 거소에는 하늘 섬들 널찍하네. 두셋 신하 동심동덕(同心同德) 기기(騎箕)¹⁸⁾처럼 어질었고 오악(五嶽)¹⁹⁾ 사독(四瀆) 그 정령(精靈)이 보장되는 도다.

이영차 들보를 아래로 들어 올리니 향그런 직(稷), 맑은 술 제기에 차려놓네. 우리의 종파(宗派) 지파(支派) 억만자손 편히하니 신명에게 환히 통해 큰 복을 받는도다.

원하옵건대 상량(上樑)한 뒤에 훌륭한 건물은 더욱 튼튼하고 왕실은 장구히 번창할지어다. 비바람이 들이치지 아니하니 청목(淸穆)한 용위(容衛)는 길이 편안하고 서리, 이슬 내리는 봄·가을에 사모하는 감회가 더욱 깊어진다. 아름다운 제수(祭需)를 흠향(歆饗)하고 큰 복을 내려 도와주기 바란다.

정헌대부 행통양위대호군 규장각검교제학 신 신석희(正憲大夫 行龍驤衛大護軍 奎章閣檢校提學 臣 申錫禧)는 교명을 받들어 삼가지음.

자헌대부 행통양위대호군 신 조성교(資憲大夫 行龍驤衛大護軍 臣 趙性敎)는 교명을 받들어 삼가 씀.

동치(同治)9년 4월 12일 진시(辰時)

明陵丁字閣重建上樑文

伏以 翊靈圖於裕後 闡陵有神 闡宸誠於追先 路寢孔碩 愀如復見 煥然一新。恭惟我肅祖 蕩烈巍功。丕承列聖朝 重熙累洽。初服命吉 越子冲人。久道化成 周王壽考。聞一言見一善行 喜起明良 本諸身徵諸庶民 親賢樂利。惟孝友克施于政 伊號令圖有不臧 議定廟之大名 神人允牧 修莊陵之曠典 祖宗有光。太室揚追加之稱 春秋義炳 皇壇薦崇報之禮 風泉思長。中壺僊明 人皆見而皆仰 西樓繩武 德彌節而彌高 猗歟義熟仁精 休茲時清道泰 最好惡而垂削 聖護洋洋 褒忠貞而翼經 多儀秩秩 率典常而明徵定係 躋仁壽而肅將紙數 宵旰憂勤 其以天萬幾一日 風霜鼓舞 厥享國四十六年。嗟劍閣秘藏於喬山 而衣冠出遊於原廟。百神護於金粟 係佑無疆 二妃從於蒼梧 陟降如在。灑掃弗缺非時節之繕修 架構易撓 其奈歲紀之久遠 肆揚見牆之容慕 受究肯堂之宏謨 度支敦工而悉稟上裁 匠氏殫技 而益恢前規。雲耕莫舉 瞻象設而安放 虹樑載抗 覆翠飛而胥欣。珊簾黼帷 肅森珠丘之柏 羅几粉純 罷咲玉欄之花 恭疏巴歛 肅備魯削。

兒郎偉拋樑東 回首鸞峯瑞色籠 想得當年功化盛 點雲無跡廓晴空 兒郎偉拋樑西 翼陵春草碧萎萎 舊時圖史留芳澤 玉駟飛凌石馬嘶 兒郎偉拋樑南 恩波洋溢海同湧 山河表裏三千里 民到于今至澤覃 兒郎偉拋樑北 賜紫蒼松英廟植 恭識聖人不泯滅 天荒地老陪宸極 兒郎偉拋樑上 北辰居所天塔巖 二三同德騎箕贊 嶽瀆精靈爲保障 兒郎偉拋樑下 香稷清醴陳豆粢 綏我宗支萬子孫 於昭辟愆申純嘏

伏願上樑之後 寶構鞏固 瑤歷綿昌 風雨攸除 穆清之容衛永安 霜露既降 斐槍之嘒慕采澣 庶嘉藏之居歆佇景命之垂佑

正憲大夫行龍驤衛大護軍奎章閣檢校提學臣申錫禧奉教謹撰

資憲大夫行龍驤衛大護軍臣趙性教奉教謹書

명릉정자각중건상량문(明陵丁字閣重建上樑文)

동치구년사월십이일진시(同治九年四月十二日日辰時)

○상량문(上樑文) 발견현황

- 일시 : 1988년 5월 20일
- 발견자 : 배기선(목공)
- 발견장소 : 정자가각 어칸 중도리 받침 장혀속.
- 규격 : 가로 16.5m 세로 36cm
- 재료 : 명주천

○보수공사개요

- 기간 : 1988. 5. 4~1988. 8. 1
- 시공자 : 대동건설(주) 대표 남기욱
- 감독관 : 문화재관리국 건축기사보 조인규
- 소요예산 : 45,521,000원
- 공사개요
 - 연목이상 해체보수(28.89평)
 - 지붕공사 : 기와교체 30%, 회침골 기와 동판갈기 14.4㎡
 - 목공사 : 연못이상 해체후 부식재교체(장연 30분, 단연 20분, 부연 25분, 목기연30분, 개관 50%), 기둥 드잡이
 - 석공사 : 침하 주초석 4개소 및 기단 드잡이
 - 기타 벽체 해체보수, 교체 부재 고색 땀단청, 방충방연재 도포.

1)周王처럼 장수하셨네 : 周의 文王과 武王은 선정을 베푼 제왕으로 文王은 97세를 살았고 武王은 93세를 살았다. 즉 숙종이 周의 文·武王처럼 교화를 잘 펴서 장수하였음을 뜻한다.

2)定宗의 큰 명호 : 조선 제2대 왕 정종은 숙종7년(1681)에 定宗이란 廟號가 追上되었다.

3)莊陵의 큰 典禮 : 조선대 6대 왕 단종은 1455년 숙부인 首陽大君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1457년에 魯山君으로 강봉되어 영월에 유배되었다가 죽었다. 숙종 7년(1681)에 大君에 追封되고 숙종 24년(1698)에 복위되어 廟號가 莊陵으로 追上되었다.

4)太室에…드날리니 : 太室은 太廟를 말한다. 즉 太廟는 역대 왕의 神位를 奉安하는 宗廟의 正殿이다.

5)皇壇에…長遠하도다 : 皇壇 즉 大報壇을 가리키며, 風泉은 飛風 下泉의 略語로 周道를 생각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明을 숭모함을 가리킨다. 숙종이 1704년 昌德宮 서북쪽에 大報壇을 설치하여 매년 3월에 明의 神宗으로 제사지냈다. 明의 神宗이 임진왜란때 원병을 보내 왜적을 물리치고 조선을 도운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壇을 설치한 것이다. 飛風은 詩經의 檜風의 편명으로 周道를 생각하여 읊은 詩이고 下泉은 治世를 사모하여 읊은 것이다.

6)西樓 : 서쪽에 있는 높은 樓閣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숙종을 이은 왕으로 생각된다.

7)聖謀 : 임금의 교훈.

8)橋山 : 중국의 陝西省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황제의 陵이 있다. 여기서는 숙종의 陵을 가리킨다.

9)冠을…노닐었네 : 원모는 太祖의 사당인 太廟를 말한다. 漢代에 한달에 한번씩 漢高祖의 衣冠을 가지고 漢高祖의 사당에 出遊하였다. 여기서는 숙종의 衣冠을 가지고 숙종이 묘셔진 太廟에 거닌다는 뜻이다.

10)金粟 : 중국 陝西省에 있는 산 이름. 산 위의 부수러진 돌이 황금조알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 위에 唐玄宗의 陵이 있다. 여기서는 숙종의 陵을 가리킨다.

11)2妃가…따르니 : 蒼梧는 중국 湖南省에 있는 지명으로 舜임금을 蒼梧의 들판에 장사지냈다. 여기서는 숙종의 계비 仁顯王后 閔씨와 역시 계비인 仁元王后 金씨의 두 妃가 숙종의 陵과 같은 明陵에 모셔졌음을 뜻한다.

12)雲駟는 天女가 타는 수레로 王의 승하를 의미한다. 즉 승하하는 왕을 붙잡을 수 없음을 뜻한다.

13)珠丘 : 구슬이 쌓여 이루어진 산. 즉 陵을 모신 산을 말한다.

14)翼陵 : 숙종의 初妃 仁敬王后 金씨의 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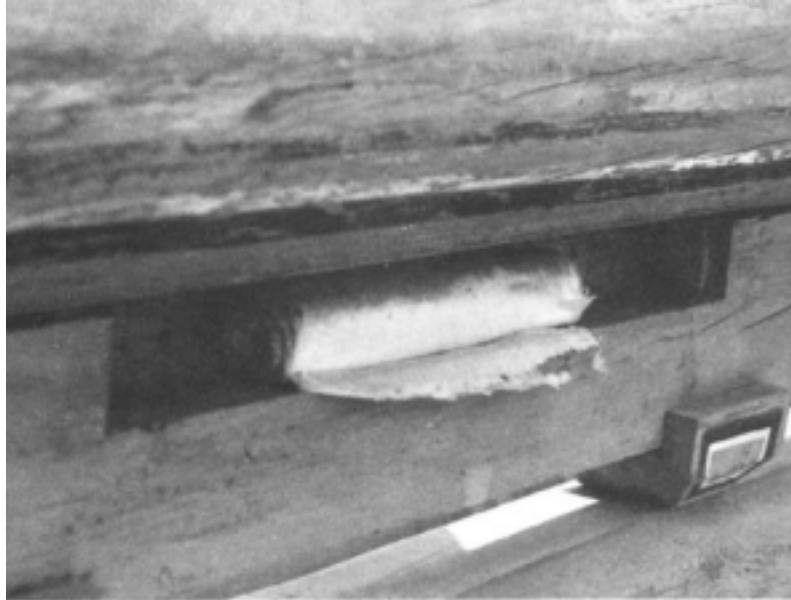
15)은혜물결…잠기었네 : 남쪽바다까지 왕의 德化가 미쳤음을 말한다.

16)誠：中庸에 誠이란 하늘의 道라 하였다. 여기서의 聖人은 숙종을 가리킨다.

17)宸極：天帝의 처소를 말한다.

18)騎箕는 은나라 高宗때의 명제상 傳說을 말한다. 즉 숙종의 신하들이 부열과 같이 어짐을 뜻한다.

19)五嶽：四瀆 그 精靈：五嶽은 동쪽의 泰山, 서쪽의 華山, 남쪽의 衡山 북쪽의 恒山, 중앙의 崇山이며, 四瀆은 동쪽의 江水 북쪽의 濟水, 서쪽의 河水, 남쪽의 准水를 말한다. 인물은 嶽瀆의 精靈에 의해 출생한다고 한다.



丁字閣 어간의 종도리 받침 장혀 측면을 따내고 그 속에 上樑文이 봉안되어 있었다.

정자각(丁字閣) 어간의 종도리 받침

장혀 측면을 따내고 그 속에 상량문(上樑文)이 봉안(奉安)되어 있었다.



上樑文의 길이가 16.5m로 길다.

상량문(上樑文)의 길이가 16.5m로 길다.

3. 헌릉정자각상량문(獻陵丁字閣上樑文)

강남구 내곡동 13-1에 자리잡고 있는 헌릉(獻陵)은 조선 제3대 왕 태종(太宗)(1398~1418) 재위과 그의 비(妃) 원경왕후(元敬王后)(1365~1420)민(閔)씨의 능(陵)이다. 상량문(上樑文)은 1988. 6. 10 정자각(丁字閣) 보수공사중 어간(御間)의 종도리 받침 장혀 사이에서 두루말이 형태로 발견되었는데 2개가 나왔다. 한 개의 크기는 124cm×59cm이고 나머지 한 개는 한지가 퇴색되고 그 보존상태가 불량하여 개봉이 불가능하였다.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은 정자각(丁字閣)을 새로이 중건(重建)하면서 작성되어 한지 보존상태가 좋은 것 같고 개봉이 불가능한 것은 태종(太宗) 승하 후에 바로 정자각(丁字閣)을 축조(築造)할 때 제작되어 그 보존상태가 나쁜 것으로 판단된다. 한지는 2겹을 배접하여 사용하였는데 상량문(上樑文)에 작성연대가 기록되어 있지않아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다. 원본 2개는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보존처리하여 문화재2과에 보존토록하고 그 내용을 필사(한밝서당 이회찬)하여 발견된 장혀속에 넣었다.

상량문(上樑文)은 오래되어 낡은 정자각(丁字閣)을 새롭게 지을 당시의 정자각축조내용(丁字閣築造內容)을 읊은 것으로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 이정섭선생이 번역하였다.

헌릉 정자각 중수상량문(獻陵 丁字閣 重修上樑文)

삼가 생각하건데 영침(靈寢)을 모신지 여러해가 되니 바야흐로 무너지는 근심이 있을까 두려워했는데, 새 건물을 짧은 기일안에 짓게되니 곧 크고도 넓은 아름다움을 칭송한다. 이에 산릉(山陵)¹⁾은 더욱 빛이 나고 훌륭한 연하(燕廈)²⁾는 하례함직 하도다.

위대한 우리 태종대왕(太宗大王)은 신무(神武)함이 세상에 드무시니 천운이 당신몸에 있었네. 군사 한번 출등하에 큰 공훈을 이룩하니 가인(家人)을 감화하여 나라를 다스렸고, 국가의 터전을 백대에 열어주니 후손에게 곡을 주고 전왕의 업적 더욱 빛냈도다.

훌륭하신 성비(聖妃)는 장경(藏敬)하고 진실한 치신(治臣)은 협찬하였다. 교산(橋山)에 장례모심은 실로 주공(周公)의 부장(祔葬)하는 예의를 따랐고³⁾, 옥전(玉殿)의 의관(衣冠)은 곧 한(漢)나라 태조묘(太祖廟)의 제도⁴⁾를 갖추었도다.

이끼는 서리와 이슬 그 얼마나 겪었던고, 마름나물은 봄·가을로 어기지 않고 제사드렸네. 다만 세월이 점차 멀어짐으로 인하여 서까래와 기둥이 장차 무너지게 됨을 면치 못하였네. 우리 성상께서 유업(遺業)계승하여 건물짓는데에 뜻이 간절하고 선왕을 사모하는 정성을 받쳤도다. 선왕의 영을 모신 사당을 사모하여 실로 달마다 나와 거니는 곳으로 삼았다.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하였으니 어찌 시세가 쇠체(衰替)한 혐의를 돌아보랴. 측량설계함은 일체 전의 규모에 의거하니 기지를 더 넓히지 아니하였고, 검소 간약함은 곧 옛 훈계를 따르니 지나치게 사치함을 경계하였다.

자르고 읊기는 공사를 마치고 나자 고대(高大)하고 화려한 건물로 일신해졌다.

용이 서리고 봉새가 날으는 듯하니 왕릉(王陵)이 더욱 높음을 깨닫겠고, 새가 날개를 편 듯, 꿩이 나는 듯하니 모두 좋은 재목, 잘 다음어진 건물을 우러러 칭송한다. 삼가 축복의 노래를 불러 큰 들보 올리는 일을 돕는다.

이영차! 들보를 동쪽으로 들어올리니 남한산(南漢山) 봉우리들중에 형세 가장 웅장하네. 안팎으로 둘러쌓여 보좌를 이루었으니 만년의 아름다운 기운 유궁(幽宮)을 향하도다.

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들어올리니 선릉(宣陵), 정릉(精陵)⁵⁾ 멀지않은 곳에서 바라보이네.

성스런 할아버지 신명한 손자 서로 계승하니 한결같은 그 공덕은 하늘과 가지런하네.
 이영차! 들보를 남쪽으로 들어올리니 하늘높이 솟은 나무 뻗뻗히 들어섰네.
 조출한 제사를 드리고나자 좋은 징조 응하여 지초(芝草)가 새로나고 상서로운 이슬 달
 콤하네.
 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들어올리니 도도한 강수(江水), 한수(漢水), 경국(京國)으로 향
 해가네.⁶⁾
 이영차! 들보를 위로 들어올리니 쳐다보면 높다높아 하늘공간 넓기도 하네.
 신거(宸居)인 북극성(北極星)⁷⁾ 높은자리 상상하리니 못별이 둘러싸서 앞 다투어 향하리.
 이영차! 들보를 아래로 들어올리니 엄숙한 밝은 뜨락 말끔이 청소했네.
 높은 언덕 감싸는 곳 백령(百靈)이 모여드니 영원히 상운(祥雲)있어 석마(石馬)⁸⁾를 보호하리.
 원하옵건데 상량한 뒤에 주구(珠丘)⁹⁾는 무너지지 않고 금속(金粟)¹⁰⁾은 더욱 튼튼하며,
 귀신은 뜰에 오르내리며 옆에 계시듯이 하여 제사가 끊어지지 않음으로써 늘 흠향하고,
 보호하며, 천명을 내리어 자손이 수효(壽孝)하고 창성하도록 영원히 복을 줄지어다. 그
 리하여 산과 하수는 전우(殿宇)를 부호하여 유구히 전하고 해와 달은 종묘(宗廟)제사와
 아울러 길이 빛날지어다.

獻陵丁字閣重修上樑文

伏以 奉靈寢於多年 方懼頽圯之患 瞻新構於不日 載頌曼碩之休 虎丘增光 燕厦騰賀 惟我太宗
 大王 神武不世 曆數在躬 集大勳於一戎 化家爲國 啓肇基於百代 貽後光前 猗歟聖妃之思齋 展也
 亂臣之協贊 橋山劍鳥 式循周廟之儀 王殿衣冠 爰備漢廟之制 苔蘚幾積於霜露 蘋蘩不愆於春秋
 顧緣歲月之寢遙 未免頽棟之將壞 惟我聖上 志切堂構 慕軫義塋 思先王之妥靈寢爲月出之死 命有
 司而興役 寧頌時譏之嫌 經營一倣於前規 基不加拓 儉約事遵乎舊訓 戒存過奢 幾斷遷之訖功 已
 輪奐之改觀 龍盤鳳翥 便覺栢城之益高 鳥華羣飛 咸仰松楸之有鳥 恭申善禱 助舉修椽

兒郎偉拋椽東 南漢群峯勢最確 表裏雲迴成輔佐 萬年佳氣拱幽宮 兒郎偉拋椽西 宜靖園陵望不
 迷 聖祖神孫承緬地 一般功德與天齊 兒郎偉拋椽南 接天雲木勢相參 明禱薦罷休徵應 芝草新生瑞
 露甘 兒郎偉拋椽北 滔滔江漢朝京國 千秋德澤尚餘波 富與生民流不極 兒郎偉拋椽上 仰視巍巍天
 宇曠 尚想辰居北極尊 衆星環拱爭相向 兒郎偉拋椽下 肅肅明庭淨掃灑 崇岡擁慶百靈趨 長有祥雲
 護石馬

伏願上樑之後 珠立不崩 金粟彌固 陟降庭止 享祀靡替於苾芩 保佑命之 壽考永錫於昌熾 山河
 扶殿宇而悠久 日月並宗祀而光輝

헌릉정자각중수상량문(獻陵丁字閣重修上樑文)

○상량문발견현황(上樑文發見現況)

- 일시 : 1988. 6. 10
- 발견자 : 박상태(목공)
- 발견장소 : 정자각 어칸 중도리 받침 장혀사이
- 규격 : 가로 124cm×세로 59cm
- 재료 : 한지(2겹)

○보수공사개요

-기간 : 1988. 4. 27~1988. 7. 6

-시공자 : 한성기업(주) 이정하

-감독관 : 문화재관리국 건축기사보 오석근

-소요예산 : 37,877,000원

-공사개요

- 도리이상 해체보수(28.22평)
- 지붕공사 : 기와교체 45%, 회침골 동판잇기 14m'
- 목공사 : 도리이상 해체 후 부식재 교체(장연 36개, 단연 102개, 부연 30개, 목기연 50개, 개판 80%, 하방 6개, 풍판 20%, 평고대 100%)
- 석공사 : 기단석 해체보수 및 초석 드잡이 4개소
- 기타 벽체해체보수 및 교체부재 고색 땀단청 방충방연제도포

1)山陵 : 원문의 虎丘는 산이름. 여기서는 왕릉을 모신 산을 가리킨다. 吳王 闔閭의 무덤이 있는 것인데 장사 지낸지 3일만에 白虎가 그 위에 걸터앉아 있었으므로 이름 붙여진 것이다.

2)홀륭한 燕廈 : 원문의 燕廈는 큰 집이 낙성되자 제비가 와서 하례함을 말한다.

3)橋山에...따랐고 : 橋山은 黃帝의 능이 있는 산이름. 王陵을 가리킨다. 祔葬하는 법은 周公이후에 비롯되었다.

4)玉殿에...제도 : 漢代에 한달에 한번씩 漢 高祖의 衣冠을 가지고 한 고조의 사당에 出遊하였다. 여기서는 태종의 의관을 太廟에 모셔둔 것을 뜻한다.

5)宣陵, 精陵 : 宣陵은 成宗의 능이고 精陵은 中宗의 능이다. 현릉에서 서쪽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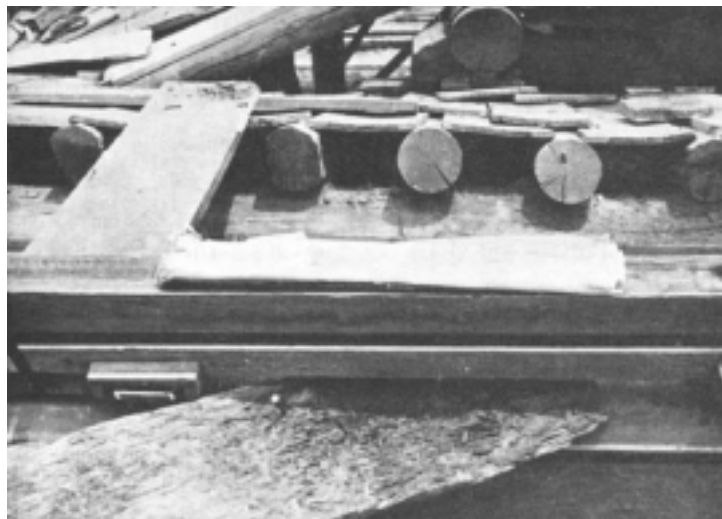
6)도도한...향해가네 : 강수와 한수가 바다로 흘러가듯 은 천하가 천자나라인 중국 서울을 향해 존송한다는 뜻이다.

7)宸居인 北極星 : 제왕이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論語」 爲政에 정치를 덕으로써 함이 비유컨대, 북극성이 재자 리에 있으면 모든 별이 그를 향하여 운행하는 것과 같다 하였다. 즉 제왕이 있는 곳을 향함을 뜻한다.

8)石馬 : 왕릉가에 세워놓은 석물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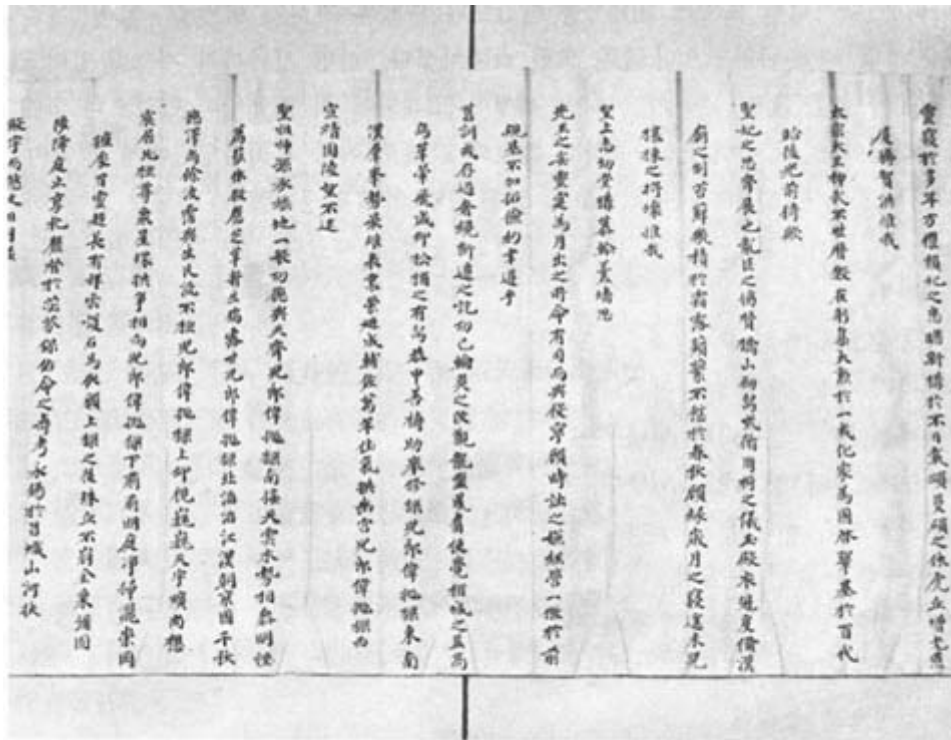
9)珠丘 : 왕릉을 모신 산.

10)金粟 : 산 이름으로 산위에 부스러기 돌이 황금색 조알같으므로 붙여진 이름. 산위에 唐 宗의 능이있다. 여기서는 태종의 능을 가리킨다.



丁字閣 어칸의 종도리 받침 장혀위에서 발견된 상량문

정자각(丁字閣) 어칸의 종도리 받침 장혀위에서 발견된 상량문



上樑文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상량문(上樑文)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4. 정릉정자각상량문(貞陵丁字閣上樑文)

정릉(貞陵)은 조선(朝鮮) 태조(太祖)의 계비(繼妃) 신덕왕후(神德王后)의 능(陵)이다. 원래 중구 정동에 있던 것을 태종(太宗)9년(1409) 2월(月)에 현재의 위치인 성북구 정릉동으로 옮겨왔다.

1987. 5. 19 정자각(丁字閣)보수공사 중 정자각(丁字閣) 어간의 종도리와 장혀 사이에서 상량문(上樑文)이 발견되었다. 상량문(上樑文) 내용을 촬영 기록한 후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보존처리하여 발견장소인 원래의 위치에 다시 넣었다. 상량문(上樑文)의 크기는 가로 136cm, 세로 60cm이고 한지에 쓰여 있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한지가 다소 퇴색, 변질되어 15자(字)의 한자는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아래의 상량문(上樑文) 번역은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 이정섭선생이 한 것으로 정자각 중건(丁字閣重建)과 신덕왕후(神德王后)를 찬양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貞陵丁字閣重建上樑文

생각건대, 공경히 받드는 도리로써 헤아려보면 폐추(廢墜)한 것이 있으면 받드시 수리해야 하고, 상설(象設)¹⁾의 의식으로써 논하면……사리에 있어서 본디 당연한 것이고 옛 사실을 상고해 보아도 또한 그러하였다. 그러므로……(원문 파손으로 ○○자 빠짐)…… 삼가 생각하건대,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는 성조(聖祖)²⁾의 배필이 되어 신공(神

功³⁾을 몰래 도우셨다. 태조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초기에 고명(誥命)⁴⁾을 받았으니 중전(中殿)의 자리가 이미 바르고 아름다운 덕이 시호(諡號)를 정할 때에 나타났으니 능호(陵號) 또한 정릉(貞陵)이셨다. 다만 지금까지 빠뜨린 일이 있었으니 아직도 전각(殿閣)이 없는 것이 관례가 아니며 세월이 오래되어 이 인순(因循)함이 있었으나 사체(事體)가 미안하여 어지러짐이 있는 듯하다. 다행히도 유신(儒臣)의 헌의(獻議)로 이에 유사(有司)담당관에게 명하여 공사를 일으키니, 백성을 수고롭히지 아니하고도 짧은 기일 안에 완성하였다. 아람찬 그 서까래는 이미……… 다하였고, …능히 검푸른 단청의 공법을 따랐다. 큰 건물지어 좋은 송(頌)으로 이에 노래한다.

들보를 동쪽으로 올리니

원근의 여러 능이 시계에 들어오네.

그 중에 건원릉(健元陵)⁵⁾ 언저리에 잣나무는 의의(依依)한 푸른 빛이 창으로 스며든다.

들보를 서쪽으로 올리니

그 기세는 하늘 높이 솟았네.

실바름은 밤마다 맑은 누각(漏刻)⁶⁾ 전해주니
그 당시 새벽 알리는 닭소리가 상상하리.

들보를 남쪽으로 올리니

산은 웅기종기 솟았고 물은 못을 이루었네.

해마다 공상(公桑)⁷⁾은 푸른 잎새 돌아나니
완연한 잠실(蠶室)은 새 누에를 기다리도다.

들보를 북쪽으로 올리니

도봉산(道峰山) 봉우리들 옥처럼 솟았네.

산은 구름 기운 붙어내여 붉은 처마 감들리니
천지처럼 장구하게 다함없이 전하리.

들보를 위로 들어올리니

구름개고 바람 맑고 옥우(玉宇)는 광활하네.

전각 모서리는 위로 자미원(紫微垣)⁸⁾에 맞닿고
북극성 네 개의 별⁹⁾ 그 형상 다시 나타나도다.

들보를 아래로 들어 내리니

귀신이 호위하고 제비들이 하례하네.

명정(明庭)은 엄숙하고 태계(泰階)¹⁰⁾는 고르네.

만만년 영원토록 큰 복을 내리도다.

원하옵건대, 상량한 뒤에 천신(天神)이 복을 내리고 지신(地神)(땅귀신)가 신령을 보여 주소서. 산골짜기 향풀과 시냇가 풀로 황한(潢汗)¹¹⁾의 제수를 올리고 소나무 기둥과 잣나무 판자로 크고 넓은 아름다운 전각 지은 것 칭송하니 큰복을 끝없이 누리고 영원토록 떨어뜨리지 말게 할지어다.

貞陵丁字閣重建上樑文

伏以 揆以寅奉之道 有廢墜必修, 論以象設之儀(○○○), 在事理而固爾 放故實則亦然 肆(○○○○ 窳闕 惟)

神德王后康氏 夙燒/聖祖, 除贊/神功, 受誥命於/御邦之初, 榘儀既正 昭德休於定益之際, 陵號亦貞, 顧有闕事於斯今 尙無殿閣者匪例, 雖年歲已以 有此因循, 而事體未安 恐爲慮欠, 幸茲儒臣之獻議 乃命有司而興工役 無勞民成之不日, 有爲其構 既畫木……………(8 궁) 克遵鸞堂之制, 脩樑載舉 善頌斯陳

拋樑東 遠近/諸陵在望中, 最是健元陵畔栢 依依蒼索滴簾櫳

拋樑西 仁王山勢與天齊 輕風夜夜傳清漏尙想當時執曉鷄,

拋樑南 山爭聳翠水成潭 歲歲公桑抽綠葉宛然蕭館待新鷺

拋樑北 道岳群峯森王立 山哩雲氣護形簷地以天長垂浩劫

拋樑上 雲放風清玉宇曠 觚稜上接紫微垣天極四星重著象

拋樑下 神鬼搗呵燕雀賀 明庭肅穆泰階平於萬斯年錫純嘏 伏願上樑之後 天神降祐 地祇效靈 潤芷溪毛 肅陳漢汗之薦 松楸栢阪 競頌曼碩之休 介景福於無疆 欽永世而勿替,

정릉정자각중수상량문(貞陵丁字閣重修上樑文)

○상량문발견현황(上樑文發見現況)

- 일시 : 1987. 5. 19
- 발견자 : 김인선(목공)
- 발견장소 : 정자각(丁字閣) 어칸중도리와 장혀사이
- 규격 : 가로 136cm×세로 60cm
- 재료 : 한지(1겹)

○부수공사개요

- 기간 : 1987. 5. 7~1987. 9. 4
- 시공자 : 대륙토건사(주) 한복석
- 감독관 : 문화재관리국 건축기사보 오석근
- 소요예산 : 34,980,000원
- 공사개요
 - 창방(昌防)이상해체보수(24.93평)
 - 지붕공사 : 기와교체 40%, 회침골 동판잇기 9.6㎡
 - 목공사 : 창방(昌防)이상해체후 부식재 교체(창방(昌防)7개, 도리 1개, 장혀 2개, 장연 23개, 단연 5개, 부연 32개, 목기연 26개, 풍판 30%, 평고대 100%교체)
 - 석공사 : 기단 및 계단 3개소 해체보수
 - 기타 벽체해체보수, 교체부재 고색땀단청, 방충방연재도표

- 1)象設 : 능이나 원 등에 석물이나 홍 살문을 설치하는 것.
- 2)聖祖 : 여기서는 조선 태조를 말함.
- 3)神功 :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공덕 즉 태조가 조선을 개국한 공을 말함.
- 4)誥命 : 중국에서 神德王后에게 조선 태조의 王妃로 승인하는 문서.
- 5)健元陵 : 조선 태조의 능, 신덕왕후 남편되는 태조의 능이므로 능 언저리에 있는 잣나무를 특별히 들어 강조한 것이다.
- 6)漏刻 : 물시계의 漏壺안에 세운 漏箭에 새긴 눈금. 곧 시각을 말함.
- 7)公桑 : 임금의 뿔나무밭. 왕비들이 公桑과 蠶室을 두었는데 왕비가 누에치기를 시범보인 일이 있다.
- 8)紫微垣 : 하늘의 별이름으로 북두성 북쪽에 있음. 즉 天帝가 자리함.
- 9)북극성...별 : 북두7성이 두표(杓) 즉 5~7까지의 세별이 가려져서 네 개의 별만 남아 있음을 말한다. 북두7성이 다시 보임을 말한다.
- 10)泰階 : 별 이름, 3대성, 하늘의 새개의 계단. 上階는 天子로, 中階는 諸侯 公卿으로, 下階는 庶人으로 삼음. 3계가 고르면 음양이 고르고 비바람이 때맞추어 불고 사직과 귀신이 다 적의함을 얻어 천하가 크게 편안해진 다 한다.
- 11)潢汗 : 고여있는 물.



上樑文을 쓴 한지가 다소 퇴색되었다.

상량문(上樑文)을 쓴 한지가 다소 퇴색되었다.